

나루에게

안녕, 나루야? 나는 정연이라고해! 나는 얼마전에 너희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었어. <5번레인>이라는 책이더라. 나는 이책을 읽을때 굉장히 즐거웠어. 내용도 그렇지만, 나도 수영하기 좋아하거든. 읽을때 공도 많이되고 두근두근 거렸어. 너희들의 세계속에 꼭젓은 느낌이야. 나루야.

나루야, 나는 한강초의 에이스지. 늘 이기적이고 말이야. 그러다가 초희에게 저버렸어. 늘 이기다가 갑자기 저버리니까 아주 충격이 왔을거야. 나도 그런적이 있었어. 나도 우리반에서 제일 빨랐는데, 어떤애가 갑자기 빨라져서 따라잡힐뻔했어. 근데 한번 그러니까 도끼 썰라자 하더라고. 내 자리가 뺏길뻔 같고 모두다 잃어버릴뻔한 같았어. 그래서 다리가 부서져라 풀이바져라 허혈쳤는데, 수영이 재미 있지도 않고 힘들어졌어. 그래서 난 그전동안 수영을 쉬었어. 그랬더니 수영이 다시 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하니까 더 잘하게 되었어. 그래서 네가 '왜 수영을 할까?'라고 생각할때 "조금 수고 해봐"라고 알려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그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수영을 하는걸 보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제8회

책속산물에게 보내는

한글손편지



너는 정말 멋있어! 역시 수영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  
니고 즐기깐 하는거야!

있잖아 나루야, 너는 선수잖아. 대회도 나가고, 그렇기  
분이 어때? 막 긴장되고 무서워? 아님 늘 이기니깐 여유  
가 있으려나. 나는 완전 긴장 될것 같아. 기록을 쟁때만  
해도 막 심장이 빠르게 뛰는걸. 그래도 재미는 있어. 발  
라켓을만 부딪히고, 다른 요바들 보다 빠르면 하늘로 날  
라갈거 같아. 사실 내가 수영을 수고 나서 선수반에 들어  
오라고 초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거절 했어. 힘들어보이고  
별로 재미가 없어보였거든. 그리고 나서 수영장을 옮겼는데  
그때 수영이 너무 좋아졌기도 했고 레벨테스트도 쳐보고, 또  
실력도 늘고, 선생님들과 같은반 요바들도 친절하게 잘가  
르쳐 주셨어. 그래서 '대회에 나가볼까?'하고 많이 생  
각했어. 그리고 나서 이책을 읽으니깐 더 대회에 나가고 싶  
고 후회 되더라고. 그래서 대회에 나가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

나루야! 너는 국가대표가 꿈이라고  
했지? 나는 대회에 나가는게 꿈이야.  
나는 수영할때 즐거워. 행복도 생각하고  
되든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락스



냄새는 정말다워. 다른  
친구들도, 너도 나도, 그리고 어  
딘가에 있을 우리같은 사람들  
도 그렇거야. 그러니 우리함께 꿈을 향  
해 달려보자!